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  
**4**  
제60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81회 임시회 개회



03

재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04/07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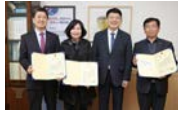
10/11

함께합니다



12

사무처 소식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봄 겨울을 이긴 봄이 우리 곁으로 달음질쳐 왔다.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과 도민의 삶의 따뜻해짐이 함께 하나가 되는 날이 이어지길 소망한다. / 미디어팀 김명선

## “코로나19,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 필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월 20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우리는 결국 미증유의 현재를 이겨낼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우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오랜 시간 자리잡아온 우리의 일상과 체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코

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은 묵상을 통해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증유의 위기, 미증유의 경제 충격, 그리고 미증유의 비상시국을 우리는 지혜와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의 지혜와 연대의 힘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결국 미증유의 현재를 이겨낼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81회 제주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요지와 답변은 5월호에 게재됩니다.

## ● 개회사



# “긴급재난금 논의, 의회 배제 유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긴급생활 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에서 의회가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김태석 의장은 4월 20일 제38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닥친 미증유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보다 명확한 현실 판단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정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준비 과정에 있어 논의의 대상으로 의회가 배제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다. 제주도정의 정책에 대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의논해야 할 정책 파트너”라고 제주도정을 향해 일갈했다.

김 의장은 “숙의와 경청이 생략됨으로써 지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고 보여진

다.”면서, “이러한 정책설계 과정에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했더라면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재원으로 55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제주도민의 삶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규모”라며,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영역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의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긴 하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며, “이와 함께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 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강성민 의원(종합대상)·김황국 의원(정책대상) 제3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사진 왼쪽),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

담2동, 미래통합당·사진 오른쪽)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친화헌정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과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등 분야의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3회에 이르고 있다.

청년친화헌정위원회는 청년친화 우수광역시·자치단체와 청년친화 우수광역의원을 선정·발표하였는데, 청년친화 우수광역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의원 중

22명이 수상하였으며,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강성민 의원은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관련 조례입법, 토론회·간담회 주관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활동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좌장으로 청년주거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청년이 행복한 주거정책 제언’ 하는 등 청년주거 문제해결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대상을 수상한 김황국 의원은 제주지역에 청년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부터 청년정담회(青年情談會)를 기획하여 9회에 걸쳐 개최하여 청년들과의 소

통기구를 정립하고, 약 1년 5개월 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장본인으로, 10대에 이어 11대의회 까지 청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청년정책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고, 도민 사회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례조사 결과 공유집 등을 발간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황국 의원은 “본인의 의정활동을 하나로 엮는 주제는 바로 ‘청년’으로, 제주에 청년정책의 디딤돌을 놓은 만큼 상당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 더 집중해서 청년정책의 완성을 이뤄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는 공채 연기 및 무산 등 청년세대들에게 더 혹독한 재난이 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청년들께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 재보궐선거 당선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

### 김대진, 임정은, 양병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첫날인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의원 3명이 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인 오는 6월 30일까지, 동일 지역구 궐위 의원이 활동하던 위원회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사진 상)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사진 중)·양병우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사진 하)은 나란히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의원들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와 함께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대진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고통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지역 주민과 인사도 하면서 정상에 올라 의정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했고, 떠오른 단어가 진정성이었다.”며, 앞으로 2년간 진정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초심 잃지 않고 저에게 주신 권한과 의무 다해 지역 발전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약속했다.

양병우 의원은 “저를 선택해주신 대정읍민 여러분과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대정읍과 제주도민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진 의원



△ 임정은 의원



△ 양병우 의원



**도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4월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주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정은·김대진·양병우 당선자(사진 왼쪽부터)가 선서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 단축 진행 교섭단체 회의 통해 코로나19 대비 안전 위한 조치 차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올해 첫 도정질문을 오전 시간대로 단축 운영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3일간 도정질문을 운영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별 질문시간

을 단축하거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해 본회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도정질문을 오전 중에 마무리했다.

이 같은 방침은 도정질문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의 준비와 대응 등으로 코로나 19의 확산방지 방역태세가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본회의장 출석 및 대기로 인한 제주도정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6일 도의회 3개 교섭단체 대표자 간 긴급회의를 열어 뜻을 같이 했고, 도정질문 해당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도정질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입장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를 이뤘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운영됐다.

## 의회운영위원회

## 4월 임시회 의사일정 일부 조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4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들어 온 제3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5일, 서귀포시 3개 선거구(동흥, 대천·중문·예래, 대정) 지역 3곳의 보궐선거로 새로 의회에 임성하는 당선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4월 임시회를 기존 4월16일에서 4월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자칫 느슨

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태세의 고삐를 다시금 바로 잡고 도와 교육청이 경제 및 교육 등 각종 현안 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을 담아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은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집행부에 대한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경우 도정질문 의원들이 가능하면 서면질문을 하거나 질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질문에 직접 연관이 없는 집행부서의 배석인원은 최소 화시키기로 하였다.

##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조사 필요

## '예방이 최선의 치료'로 관리 기준 수립해야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야생)동물카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야생동물과 관람객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제주도내 (야생)동물카페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지닌 야생동물을 사람과 같은 공간에 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예방관

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연구실은 개선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도내 야생동물 관련 전시·체험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지정·관리 방안, 야생동물 개체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등록하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스위스의 경우처럼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하는 경우 면허 발급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관람객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구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관리지침을 정비하고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야생동물의 판매, 전시, 소유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지침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도정이 한발 앞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을 유념하여 현실에 맞는 관리·감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위원회

##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

##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 준비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에서는 3월 27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토론회 등) 추진계획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도민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로는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2단계로는 연속 토론회 후 협의체 운영 또는 추가 토론회 개최, 도민

의견 수렴 추진 등의 세부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간 제2공항 관련 도민사회 갈등의 원인이었던 현)제주공항 확충 필요성, 성산읍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쟁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도와 국토부의 협력을 원만하게 이끌어 내는 등 도민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제주도와 도교육청 25일간 결산검사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장은 4월 6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

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김태석 의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도와 교육청에서 1년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환류를 통해 발전적 재정운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에 임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4·3추념사업의 체계적 추진 나선다

### 강철남 의원,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준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72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추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주4·3 추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본 조례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추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중복적 지원 및 성과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 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2억원, 2019년 22.4억원, 2020년 24.6억원에 이른다. 해당 예산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 및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4·3추

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성과 평가에 관해 별도의 심의를 진행 할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에서 실시되는 4·3추념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4·3추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향후 보다 내실있는 4·3추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례 준비 과정에서 4·3유족 및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을 자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해 위원회 운영 공개 규정

### 홍명환 의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사진)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

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명단공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중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중 손실 발생 시 보상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제정)안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금일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

으로 전환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본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도박중독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절실

### 김장영 교육의원, 도박중독 및 예방 치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사진)은 도박중독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해당 정책 추진 과제·방법·예산 확보·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고 예방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장영 교육의원은, “예전에는 도박하면 화투, 카지노, 경마를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이 온라인 불법 도박이 성행하면서 도박중독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의 n번방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인터넷 등 매체에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과

2,30대 청년들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하여 죄책감 없이 시작하여서 어릴 때 노출될수록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기에, 안전장치 없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어른·청소년 할 것 없이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도시위원회

# 공항 소음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의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 예고된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공항공사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

으로 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세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예산 관리감독의 한계와 집행절차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지 여부 등 조례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 조례제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자연경관 훼손 및 경관 사유화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4월 27일 현장방문을 거친 후 28일 제주특별자치

도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문'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송악산 일대를 망가뜨리는 호텔 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송악산 개발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 17일 성명을 내고 "중대한 오류로 점철

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무효화하고 뉴오션타운 사업을 완전 철회하라"며 "아울러 송악산 일대를 역사문화유적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프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물’ 사후관리 근거 마련 강철남 의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81회 임시회에 발의됐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에는 지난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제주평화나비와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비(사진)가 있는데,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 유일한 평화비에 대해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

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가능했다.

조례를 개정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만 없다고 보인다.”며,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철남 의원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기



념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고 있다.

## 제주의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되나 강민숙 의원, 인문학 등 진흥 조례 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과 인류 전반에 관여하는 학문인 인문학에 대한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인문콘텐츠 및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지난 2016년에 이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화체육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제주도의 정책 환경은 제주학, 제주어, 독서진흥 위주 정책비전 만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을뿐 정작 도민들은 해당 인문학진흥에 대한 지원, 생애별 교육, 인문학의 대중화에 대한 체감이 없는 현실이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총량의 문제제기에서 오는 갈등을 인문학정신으로 공동체회복의 거점을 부여해 보는데 있다.

조례를 제정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 제주다움이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데, 최근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정주여건의 불편야기에서 오는 공동체위기를 인문학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코로나19, 도내 수산업 종사자 ‘신음’ 도내 7개 수협 조합장과의 현안 간담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4월 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산업계의 현안으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 관내 7개 수협(제주시, 성산읍, 서귀포, 모슬포, 한림, 추자, 양식) 조합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도내 수협조합장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 문제점으로는, 어선어업분야는 갈치 소비둔화, 조기 어획부진 및 휴어기 도래로 이어져 어선어업자들의 파산 위기 걱정, 양식분야는 광어 어가폭락 및 소비둔화 지속으로 인한 경영악화, 마을어업분야 소라 일본수출이 막히고 국내소비 부진으로 조업자채 곤란 등으로 요약

됐다.

이와 같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갈치 소비촉진 방안 마련, 조기 유자망 어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소라 소비촉진 방안, 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광어필렛 자동화 기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호 위원장은 “지금 나라 전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있으나 제주도내 수산분야의 당면 문제가 심각한 만큼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과 협력하여 시급한 사안부터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 제주광어 특판행사 참여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에서는 4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광어특별 할인 판매행사에 참여했다.

최근 야외활동 자제와 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수산물의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양식광어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3%, 약 100억원(3월26일기준) 가량 감소하면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되는 제주산 활광어와 광어어묵 등을 특별할인 판매하는 행사에 참석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한편, 행사 관계자의 사기진작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호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의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비확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의회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교육위원회

##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3월 24일 양진혁 등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을 받고 그 결과 처리를 논의하고 있

다.

청원에 따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과잉 등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이나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이 학생들이 겪는 일상이라고 하면서,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하는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서울, 전북, 경기, 광주)이 제정되었고, 7개 시도는 제정 추진 중이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직원, 학부모 활동보호도 같이 고려하여 할 것이고, 의원발의 또는 집행부 발의 등 조례제정 주체에 대한 논의, 2012년에 기 제정된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혹은 학생인권·교권보호·학부모활동 보호 등 각각의 조례 제정 등 다각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제381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에 대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차질 없는 원격수업 진행, 학교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4월 17일 서귀포고등학교를 방문,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

격수업 진행을 점검했다. 지난 4월 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었고, 16일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도내 전체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격수업에 1차적으로 중학생 3학년 45개교 222학급에 6,118명, 고등학생 3학년 30개교 223학급에 6,0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차

에는 초등학생 4, 5, 6학년 113학교에 20,006명, 중학생 1, 2학년 13,358명, 고등학생 1, 2학년 12,606명 등 총 45,970명이 원격수업에 참여했다.

원격수업 진행상황을 지켜본 강시백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대응 현황보고 때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었다.”며, “비록 원격수업 진행 초창기이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서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생생 의정활동

# 소상공인 위원회 참여 및 재난발생 시 긴급지원 심사 가능 강성민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사진)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제10조)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구성(제11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사항

로 개정한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과 관련해 강성민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한 여건이므로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

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중앙언론보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총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기 추경 재원마련에 대해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수시로 조속히 내놓아야 하고, 중복지원을 추진할 것인지, 만약 중복지원을 한다면 제주도와 의회가 견해가 다른 지원 방식도 의회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고은실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사진)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넘어서 평생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은 물론 관련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고은실 의원은 “201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을 넘고 있고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26%를 넘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령기 교육에서 탈락되어 왔던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여 장애성인 학습자의 학습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김희현, 송영훈, 문종태, 조훈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 도,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제도화 시동 조훈배 의원 등 5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처리 조례안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사진)외 5명(문경윤, 송영훈, 고용호, 김경학, 강철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발생하는 폐배터리 또한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오고 있으나, 배터리 재사용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근

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훈배 의원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훈배 의원은 “현재, 환경부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배터리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

하여, 제주도의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조례의 입법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사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 학교 장기휴업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책 마련 김희현 부의장 등 교육복지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사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상황이 장기화되어 교육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개별 교육활동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 부의장은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김희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충룡, 강성의, 고은실, 문경윤, 부공남, 조훈배, 김창영,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 국제화 교육활동 범위 해외 민족교육기관까지 확대 부공남 교육의원, 국제화 교육활동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사진)은 교육청의 국제화교육 활동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간 인도적 차원의 봉사와 연관된 국제화 교육 활동의 범위가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을 넘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까지로 확대하여 도내 학생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 해외민족교육기관과의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교육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우스리스크의 고려인 민족학교를 방문했을 때 고려인 4~6세들이 한민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

도록 조국의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나 업무 교류가 제대로 안 되어 방문단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왔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교육청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부공남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호형, 양영식, 흥명환, 정민구, 오영희, 문종태, 문경윤, 강성민, 김희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 2020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는 2020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도에는 조례 제정(또는 전부개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총 7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분기별(연 4회 예정)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입법평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2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 필요하거나 개정을 검토하도록 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

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홍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3>토론회</h3> <p>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p>	
	<h3>인터넷방송</h3> <p>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p>	
	<h3>회의록 열람</h3> <p>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p>	
	<h3>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h3> <p>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 064-741-2285</p>	
	<h3>의정자료센터</h3> <p>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 064-741-2305</p>	

시로 읽는 제주



봄 실종

박병란

제주 중산간에 가면  
 <고사리 채취 길 잃음 주의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와글와글한 고사리밭  
 철렁한 물결  
 고사리 뜯다가  
 두견주 삭는 줄 모르고  
 파종 씨앗 썩는 줄 모르고  
 뱅그르르 말린 꽃대 따라 들어갔다 그만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끌려 다닌다는  
 봄이면 도지는 병  
 알음알음 손을 잡아끌면 미끄덩 빠져서  
 땡강땡강 고사리 목을 따다  
 봄을 따다 길을 잃어도 좋을 봄  
 봄 따라 갔던 당신도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땅속 새싹들의 잠을 깨우려고 봄비가 부지런히도 오신다. 들녘엔 온통 초록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진다. 바야흐로 봄은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계절이다. 물론 우리의 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철책이다. 나와 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살아서 움직이는 바이러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침묵 바이러스가 실상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봄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불리지 못하는 슬픔은 유년시절 어두워질 때까지 불리지 않는 이름처럼 등을 서늘하게 한다. 무기한 묵언수행에 들어간 계절이 언제쯤 우리 손을 잡아줄지 하루가 길다.

제주에서는 4월부터 5월에 내리는 비를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 음지를 좋아하는 고사리들이 꿈지락꿈지락 얼굴을 내미는 때다. 습기를 좋아하고 그늘을 좋아하는 고사리는 제주에서는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고사리를 이용한 육재장이나 몸국 등도 제주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래서 고사리철이 되면 중산간 도로엔 차들로 뺨뺨하다. 고사리를 꺾으러 온 사람들의 행렬이다. 주로 새벽녘부터 고사리를 꺾기 시작해서 점심때 끝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래만 쳐다보면서 고사리를 꺾다보면 나도 모르는 새 낯선 길로 접어들 때가 많다. 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어서다. 그래서 고사리철이면 길을 잃어버리는 사고도 발생하고, 뱀에 물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덩불숲이 고사리들의 서식지인 까닭이다.

그렇게 시에서 '실종'은 병적인 욕망이다. '도깨비에 홀린 것처럼 끌려 다닌다는/봄이면 도지는 병'이나 '땡강땡강 고사리 목을 따다/봄을 따다 길을 잃어도 좋을 봄'은 '봄'이라는 계절을 앓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허상이다.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바람처럼 떠돌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지. 어느 순간 육체와 영혼은 내 것이 아닌 어떤 령(令)에 의해 자꾸만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어진다. 자연은 그런 힘을 가진 존재자이다. 꽃들이 나무들이 소리 없이 어디선가 나를 부른다. 어쩌면 나의 전생이 그곳이었는지 모르는.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내 발걸음이 자꾸만 그곳으로 흐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침내 '봄 따라 갔던 당신도 여태 돌아오지 않고 있다'에서 존재는 부재(不在)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있음과 없음이 결국은 같다는 것을. '실종'은 사라짐이 아니다. 어디선가 뿌리를 내리고 실종의 가담자로 은닉자로 우리를 끌어들이지도 모른다.

글 김효선/시인

청탁금지법 Q & A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p>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 사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기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15일	정례회 2회/41일, 임시회 8회/74일
3월	제380회 임사회	3.17.(화) ~3.24.(화) (8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81회 임사회	4.16.(목) ~4.29.(수) (14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82회 임사회	5.14.(목) ~5.20.(수)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83회 제1차 정례회	6.15.(월) ~6.25.(목) (11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84회 임사회	7. 1.(수) ~7. 3.(금) (3일)	· 후반기 원구성
	제385회 임사회	7. 13.(월) ~7. 23.(목) (11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월			
9월	제386회 임사회	9.16.(수) ~9.22.(화) (7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87회 임사회	10.13.(화) ~10.29. (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	11.16.(월) ~12.15. (화) (30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1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89회 임사회	12.17.(목) ~12.23. (수) (7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 행정서비스에서 시작되는 청렴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져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공직자의 올바른 청렴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공직사회에서는 과거의 청렴사례를 통해 올바른 청렴정신과 몸가짐을 배우기 위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자체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을 듣고 공감하는 경청기법, 적극적인 민원 응대 자세, 등 마음가짐을 배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효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과 응대 후 마음이 흡족하고 뿌듯한 적이 많다.

오늘날 청렴에 대한 각종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역량강화교육, 결의대회 등 공무원 사회는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청렴일화집을 접한 적 있다. 첫째마당에서 "예산과 공용물의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아홉째마당 "책임지는 자세"까지 청렴과 관련된 공정하고 엄정한 직무수행 등 총 아홉 개

의 주제로 시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엮은 것으로 부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성하고, 현대적 청렴개념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노력했던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로 과거 청렴인들의 일화를 통해 청렴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었다.

과거에는 뇌물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공무원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깨끗함과 누구나 인정하는 서비스와 업무처리 과정 등에 유리알 같은 투명함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원 만족의 수준을 넘어 민원을 감동시켜야 하는 데까지 밖에서 바라보는 청렴 척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청렴은 공직자인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을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응대하면 최고의 명품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김정희 / 이호동주민센터

## 제주국립묘지 조성 본격화



현재는 과거에서 비롯되고 미래는 현재로부터 온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온전한 삶은 과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령, 무명의 많은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후배 세대들은 그 분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성터에서 살고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존경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제주지역의 숙원이었던 제주국립묘지가 지난해 11월 착공을 했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2004년 이후 무려 15년 만의 일이다.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1만 3천여 명의 6.25 참전유공자와 4천여 명의 월남참전유공자들의 오랜 간절함이 일구어낸 결과이리라.

제주국립묘지는 현 제주시 충혼묘지 권역(한라산 아흔아홉골)에 27만여㎡ 규모로 봉안당 및 봉안묘 각각 5천기, 현충관, 현충탑, 유족 편의시설,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하게 되며 2022년 하반기 즈음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 출신 6·25참전유공자가 한 해에 100여 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한다. 지난날 험난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신의安危를 내던졌던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받고 예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혼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가족묘지, 공동묘지, 양지공원 등에 쓸쓸히 안장되는 안타까운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제주국립묘지가 개원되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도 안장할 수 있게 된다니 하니, 그분들의 희생에 이제라도 보답하는 길이 열렸음에 기쁘고 끝까지 예우를 다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우리의 참전영웅들을 위해서라도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순풍에 돛 단 배처럼 조용한 가운데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양은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제주도의회, 공익 콘텐츠로 홍보·소통 SNS 활용한 '의회 잇수다' 첫 런칭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공익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와 더불어 도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나섰다.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단계적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빵 등 4개의 소셜네트워크(이하 SNS) 홍보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더해 이 플랫폼에 대한 대한 접근성 확대와 네티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의제들을 선정, 홍보와 소통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초 그 첫 번째 순서로 '의회 잇수다(있다)'코너를 신설해 '제

주4·3'을 주제로 고태순 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4·3평화재단 관계자, 신성여중 사회탐구동아리 SOSI-G(소시지) 소속 학생들이 함께한 프로그램 제작을 마쳤다.(사진) 이 코너는 제주어를 활용해 제주4·3 바로 알기를 비롯 시낭송(김경훈 시인) 그리고 제주4·3 관련 노래(최상돈 가수의 애기동백꽃) 배우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사라질 위기 언어로 선정된 제주어를 보존하고 도민들과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작된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SNS) 및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올 연말까지 7차례에 걸



쳐 다양한 의제를 갖고 '의회 잇수다'를 진행, 도민들과 양방향 소통과 눈높이를 맞춰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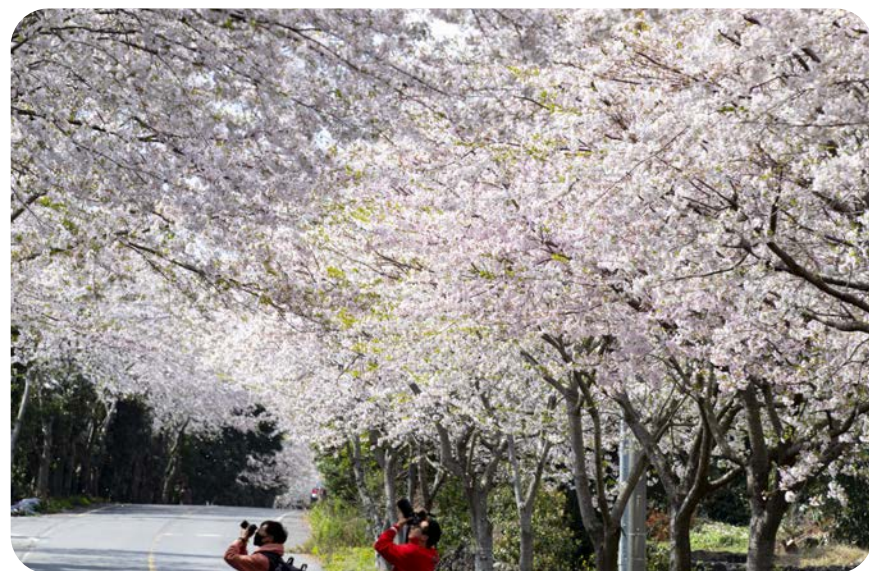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 추념일에 맞춰 4·3평화공원에

서 의미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있었다"며 "특히 학생들과 함께 제주4·3 바로알기 등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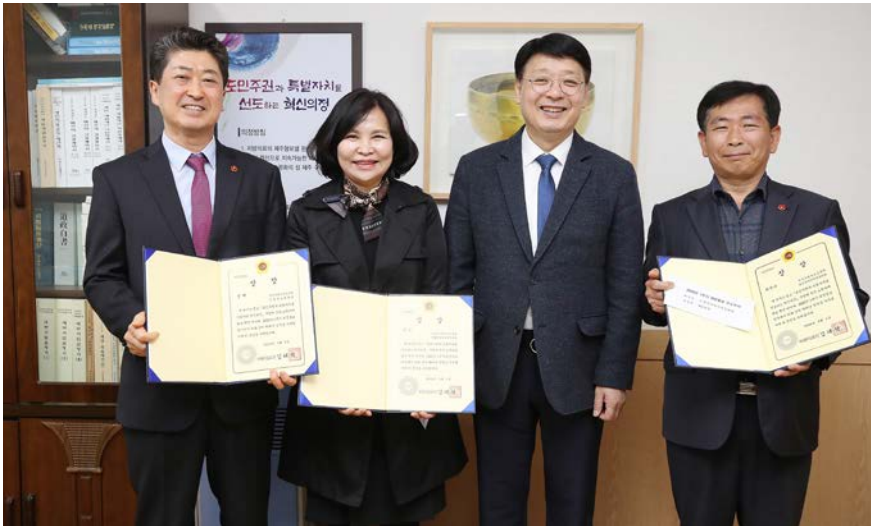
### 포토뉴스



**황금 백색의 빛깔, 제주의 봄** 대정읍 송악산에 흐드러진 유채가 봄기운을 뿜어내고 있고(사진 왼쪽), 성산을 삼달리에도 벚꽃이 만개했다(사진 오른쪽). 노란 유채가 깊어진 빛을 발하고, 분홍빛 벚꽃비가 어느새 내려 봄은 더욱 깊어지고 여름으로 달려갈 채비를 하고 있다. / 미디어팀 김영선



## 도의회, 1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김태석)는 1분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우수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장려에 민원홍보담당관을 각각 선정하고, 4월 1일 시상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분기별로 진행키로 했다. 평가는 방송매체 홍보자료 제출, 언론 보도실적, 언론 기고, 홈페이지

게시관 자료 등록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부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분기별 우수부서를 기존보다 확대(2개 부서→3개부서) 선정하여 부서별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들고, 반기별로는 최다 기고직원을 기고왕으로 선정 시상키로 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집단현안, 재산권 관련 민원 증가세 1분기 의정민원 분석결과 전년동기 대비 10% 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김태석)의 올해 1/4분기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 분석결과 총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가 증가했다.

대상민원을 보면 ▲청원 9건, ▲진정 20건, ▲옴부즈맨 제보·제안 11건, ▲의회에 바란다(도의회 홈페이지) 4건 등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의회 옴부즈맨의 제보·제안건수는 작년 대비 14건에서 11건으로 21% 줄었다.

세부적으로 진정 및 청원민원 중 생활불편 민원이 총 29건으로 전년대비 81.3% 나 늘었다.

민원별 주요사례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찬반 민원과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에 따른 재산권 관련 민원이 다수를 차

지했다. 분야별로는 해양, 도시, 환경 순이며, 상임위원회별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원이 25건(56.8%)가장 많았다.

접수유형을 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문서 민원이 23건(52.3%), 직접 도의회를 방문한 민원이 21건(47.7%, 전년대비 20.2%증가)으로 민원 당사자들이 도의회를 방문해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접수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접수·처리된 민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 및 유형별로 분석한 1분기 민원분석 자료를 전 의원실과 공유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접수된 민원 처리상황을 분석, 전 의원실에 제공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민원 재발 방지 등에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신세계면세점 진출 심의 중단 촉구” 제주민생경제포럼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은 4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10일 재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코로나 19가 안정 국면을 맞고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따른 문제가 선결될 때 까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이어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은 절차적 문제와 골목 상권 잠식 및 교통 혼잡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신세계면세점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첫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 개발 착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의장 김태석)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하여 자치법규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2015년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입법평가를 실시한 조례 총 679건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637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2015년 연구용역과 차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주 현실에 맞게 잘 규정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분석할 예정이며, 인권, 복지, 환경, 관광, 교육, 농수축·경제 등 다양한 분야별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

여 분야별 조례에 맞는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지표개발 입법평가 모델 구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금번 입법평가 연구용역으로 급변하는 제주 현실에 맞는 입법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코로나19로 자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에게 도의회 홈페이지(의정자료센터-전자도서관) 또는 스마트폰·태블릿 PC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전자책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도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독서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도의회 의정자료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자책 서비스 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시공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료센터에 접속하여 로



그인, 대출회원 가입신청 후 전자도서관으로 들어가서 전자책을 대출하거나 스마트폰 앱 ‘에스24-전자도서관’설치하여 이용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전자책 외에도 도민들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오디오 북을 새롭게 도입하여 독서환경을 개선해오고 있다.

## 작은 실천, 소소한 변화로 청렴문화 견인 청렴카드뉴스 제작, 청렴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실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의회사무처 2020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서 특색을 살린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키로 했다.

민원홍보담당관실은 이번에 시행할 반부패·청렴시책을 이달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및 전 직원 개인 모바일 전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청렴진단의 날(월1회) 운영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무를 자가 진단하여 청렴의 생활화를 실천할 방침이다.

민원홍보담당관실은 도의회 홈페이지 소.확.행 코너에[청렴이야기]메뉴를 신

설하여 청렴실천과 관련된 만화, 이미지 및 유익한 콘텐츠 등을 등록하고, 도의회 소식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드림제주 21) 제작 시 청렴·반부패 홍보코너를 마련해 도민들이 청렴문화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홍보담당관실은 이번 시책추진을 계기로 직원들 스스로 청렴실천을 유도하고 도민들과 청렴문화 공유 그리고 시행결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청렴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렴문화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